

설 대목 잡아라... 택배 '빅3'의 배송전쟁 '로봇까지 동원'

작년보다 물량 25% 증가 예상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특별수송기간 인력 추가 투입
퀵·챗봇 등 서비스도 차별화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택배업계 '빅3'의 배송 전쟁도 본격 시작된다.

특히 이들 빅3 회사들은 택배를 주고받는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차별화된 여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택배물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5일 사이에 설 택배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5일째엔 하루 최대 약 160만 박스도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마다 설 특수기를 대비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31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간 CJ대한통운은 오는 3월 2일까지 5주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다.



CJ대한통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전국의 물동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한진의 대전 허브터미널 자동분류기에서 택배가 분류되는 모습.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전국 1000여 집배점에 대한 긴급 배송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500여 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본사 직원 300여 명도 현장 지

이 기간 CJ대한통운은 서울 본사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전국의 물동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콜센터 상담원과 물류센터 상·하차 분류 아르바이트 인력을 20% 가량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터미널과 택배 차량 등 시설, 장비도 사전에 정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배송 지원인력도 추가 투입한다.

한진도 5일부터 명절이 끝나는 19일까지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차량 추가 확보, 분류 인력 충원을 통해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도 원활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수송차량도 추가 운영하고 고객 배송에 앞서 터미널 간 상품을 이동하는 간선차량에 대한 정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엔 본사 직원을 택배 현장에 투입해 분류작업, 집배송 및 운송장 등록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은 농협의 지역 농산물 운송도 지난해 추석부터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추석 대비 60% 가량 농산물 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전담 차량 및 인력을 두배로 늘리는 등

관련 업무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다음주께 선물 발송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편의점 등 통해서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온라인 택배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상담도 빠르고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달 21일까지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전국 1000여 집배점에 대한 긴급 배송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500여 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본사 직원 300여 명도 현장 지

원에 나선다. 또 물류센터 분류인력과 콜센터 상담원도 각각 50% 늘린 상태다. 차별화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대화형 로봇 '챗봇'이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챗봇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택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택배터미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휠 소터'도 설과 같은 특수기 물동량 처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휠 소터(Wheel Sorter)'란 소형 바퀴(휠)를 통해 택배 상자를 배송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비로 CJ대한통운은 현재 10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진도 '퀵택배'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에 나선다.

한진은 지난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일반 택배보다 빠르고 퀵서비스보다 저렴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스타트업 기업 원더스와 제휴해 신규 운송모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선 및 긴급 상품에 대한 원활한 배송 뿐만 아니라 물량 집중시 배송이 지연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신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사진)이 선임됐다.

동반위는 1일 서울 반포동 세라톤팔레스호텔에서 49차 회의를 열고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권 신임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권 위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대 노동부 장관, 단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호 기자

>> 1면 '액면분할의 경제학...'서 계속

주가 상승과 큰 연관은 없어

LG생활건강 역시 주가가 120만원까지 오르면서 액면분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 비중도 1.61%로 상당히 낮다.

주주들의 요구가 크다고 해서 기업들이 실제 액면분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뿐더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가 늘어나고, 주가 변동폭이 커져 신경 쓸 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단기적인 주가상승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2000년 이후 667건의 액면분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공시일 당일 3.78% 상승, 평균수익률은 +60일 전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했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한줄 News

정책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등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금융
▲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 1월 한달 간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침체된 내수 시장 분위기를 반등시켰다.

유통&라이프
▲ 홈플러스가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대폭 넓힌다.

출퇴근 중 車 사고, 산재가 車보험보다 유리

고용부, 보상수준 비교 보험료 할증정도 감소 등 효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을 비교한 결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

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높거나 장애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구체적인 인화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올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 2.9만개 감소 전망

고용정보원·산업기술진흥원 2018년 일자리 전망 발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반도체 업종과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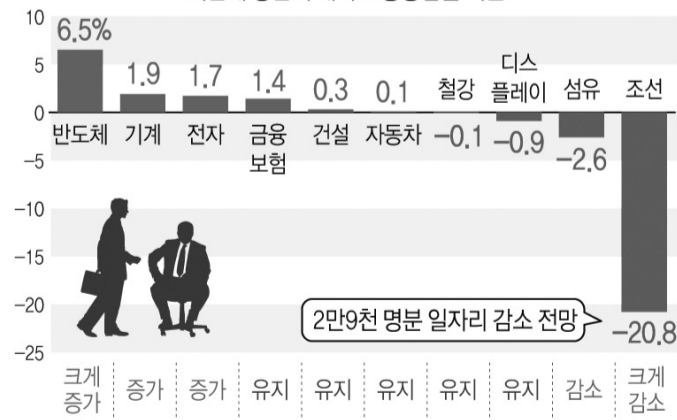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9000명(20.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건조량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섬유 업종도 중국·미국·중동 등의

주요 업종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재 생산 확대와 섬유제품 수요 감소, 자동차 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5000명 정도(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업종은 중국 생산량 감소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산업 여건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설, 조선 등 국내 철강 제품 수요 산업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시황 부진의 여파로 고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종도 내수 판매가 지난해 수준인 182만 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7000명(6.5%↑) 정도 고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S홈쇼핑 작년 1445억 영업이익

GS홈쇼핑은 지난해 144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총 매출액은 1.3% 감소한 1조 517억원, 당기순이익은 6.3% 줄어든 97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조 9220억원을 기록, 홈쇼핑 업계 1위를 공고히 지켰다.

지난해 전체 취급액은 '모바일 쇼핑'이 이끌었다. 모바일 쇼핑은 전년 대비 18.3% 신장한 1조 5562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합한 '온라인' 취급액은 총 1조 9159억원으로 집계, 48.9%까지 비중을 확대하며 TV쇼핑 취급액(1조 8394억원·전년 대비 0.6% 성장)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사업 역량을 모바일 시장으로 재빠르게 옮기며 TV상품과 연계한 모바일 쇼핑을 강화하는 등 채널 간 시너지를 강화한 결과다. GS홈쇼핑의 모바일 쇼핑업은 홈쇼핑 업계 최초로 3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인도 등 해외사업 손상을 반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GS홈쇼핑은 해외사업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n6326@